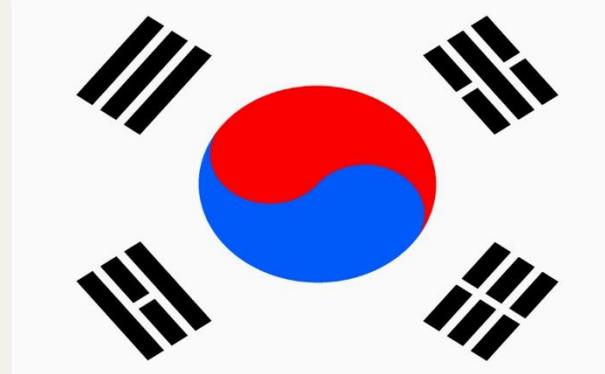


미얀마팀의 9월 보고서

미 지 존



오현진
신유정
안소연
홍세현
구건모

with



KB국민은행

RoomAtti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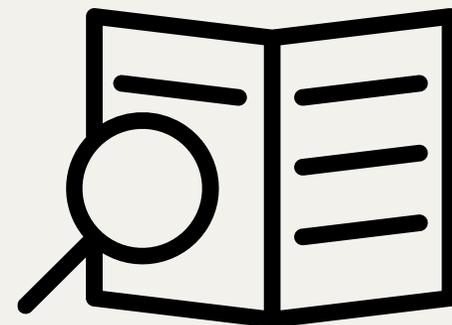
01 보육

02 하우스 키핑

03 아띠 클럽

04 일상생활

05 월별 나눔



**모
모**

1주차 - Wash your hands_사전 준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동요 찾기

손 씻는 방법 숙지

올바른 손씻기 방법
비누로 손씻기만 잘해도 주요 감염성 질환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p>1 거품내기</p> <p>손에 물을 적신 후 충분한 양의 비누를 손 전체에 바른다.</p>	<p>2 손바닥</p> <p>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p>	<p>3 손가락</p> <p>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주세요.</p>	<p>4 손등</p> <p>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p>
<p>4 엄지손가락</p> <p>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주세요.</p>	<p>5 손가락사이</p> <p>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가락지를 끼고 문질러 주세요.</p>	<p>6 손끝, 손톱 밑</p> <p>손바닥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해주세요.</p>	<p>7 손씻기 및 건조</p> <p>물로 손을 씻고 완전히 건조시켜주세요.</p>



울동 창작하기

1주차 - Wash your hands_활동 내용



올동 따라하는 아이들



차례차례 줄 서 기다린 후 손을 씻는 아이들



미지존의 한 줄 소감

오현진

춤과 노래를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율동을 하였을 때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신유정

아이들에게 손 씻는 방법을 노래와 율동을 통해 알려줄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

안소연

아이들을 처음 만난 주였다. 보육에 집중하기 보단 낯설음에 적응하는 주였다.

홍세현

손을 씻는 노래를 알려주니 나중에도 쉽게 복습할 수 있어서 재미 있었다.

구건모

학교에서 배운 손씻기 방법을 복습할 수 있는 기회였고 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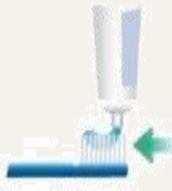
2주차 - Brush your teeth_사전 준비

회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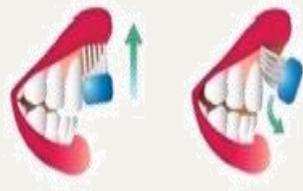
양치질 하는 법 숙지



칫솔 잡기



칫솔 짜기



칫솔을 잇몸 깊이 넣고 이와 잇몸이 닿는 부위부터 돌려서 닦는다



치아의 바깥쪽을 닦는다



치아의 안쪽을 닦는다



치아의 씹는 면을 닦는다



혀를 닦는다

YouTube video player showing a cartoon monster brushing its teeth. The video title is "Brush Your Teeth | Kids Songs | Super Simple Songs". The video has 2만 likes and 1만 comments. The video player interface includes a play button, progress bar (0:16 / 2:14), and various control icons.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동요 찾기

1주차를 바탕으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한 가지 주제로 보육을 준비해 가지만 우리가 통제를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얼버무리며 마무리 된 점이 없지않아 있다. 산드라 간사님과 첫 미팅 때, 아이들에게 강연할 것을 준비하라고 요청 받았다. 첫째 주가 손 씻기, 둘째 주가 양치하는 법. 첫째 주 당시 아이들이 유치원 선생님의 지시 하에 따라 오기는 하지만 과연 아이들이 흥미가 있어서 따라 오는 것인가에 의문을 가졌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생각했다.

2주차 - Brush your teeth_활동 내용



아이들의 율동 시범



금방 따라하는 아이들



저 세상 텐션



2주차 - Brush your teeth_활동 내용

09



직접 시범 보이는 견모 단원과 그 옆에서 열강하는 현진 단원

2주차 - Brush your teeth_활동 내용

10



집중해서 청강하는 아이들



우리들의 미숙한 미얀마어 설명을 열심히 보충해주는 알렉스

2주차 - Play the game with ball & rope

#다리 사이로 공 넘기기



VS

A팀 선두 맘마 유정

B팀 선두 맘마 소연



Ready~~~
Start!!!!



결승점을 향해 뛰어

2주차 - Play the game with ball & rope

12

#머리 위로 공 넘기기



상대팀을 견제하면서 최선을 다 하는 아이들

아무래도 에너지 넘치는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 역시 몸으로 하는 활동이 최고인 것 같다. 단순한 게임이지만 소통이 미숙하기 때문에 시범과 보육시설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조금만 지나면 곧 잘 따라와주는 아이들이 우리가 준비한 게임을 즐겨줘서 다행이다

2주차 - Play the game with ball & rope

13



줄넘기 협찬_강테

줄넘기를 활용한 신체활동을 많이 했다. 줄을 낮게 뒤 뛰어넘기, 줄 밑으로 통과하기, 움직이는 줄 피하기 등. 게임 진행 후 줄넘기를 보고 달려드는 아이도 있었고, 줄을 놓고 주지 않으려는 아이도 있었다. 줄넘기에 대해 관심이 생긴 모양이다.

얘들아,, 조금 더 커서 2단뛰기 시험 할래??



2주 동안 배운 노래를 틀어 놓고 폭탄 돌리기 게임을 진행했다. 우리들은 “Wash your hands”와 “Brush your teeth” 노래를 흥얼거리며 공을 넘긴다. MC 알렉스가 노래를 멈출 때, 공을 들고있는 사람은 벌칙을 받는다. 마오글라바 아이들은 동요를 부르거나 모델 워킹을 보여주는 등 끼가 넘치는 재주들을 보여줬다.

2주차 - Famous Instructor HyunJin



끄적끄적



아이스크림~

집중유도 337 박수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짝짝



?????



3개 언어 색깔 공부

미지존의 한 줄 소감

오현진

위생과 관련된 교육을 하며 아이들이 꾸준히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반복해서 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신유정

아이들에게 이 닦는 방법을 알려줄 때, 아이들이 동작을 열심히 따라해서 준비한 보람을 느꼈다.

안소연

2주차의 메인 주제는 위생이었지만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 우리가 메인으로 준비한 것 보다 서브 활동을 아이들이 더 좋아한 것 같아 다음 기획에 반영해야겠다.

홍세현

아이들이 체육수업을 하면서 더 신나게 노는 것 같았지만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 게임 룰을 설명하는 부분이 힘들었다

구건모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너무 활발해서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힘들었다.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 2주차 - Rest Time



아이들 낮잠시간은
우리도 쉬는 시간



머리 묶어주는
다정한 건모 단원



아이들한테 인기만점 아피들



1, 2주차 - Hard Commute



왕복 2~7시간 씩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수, 목요일에는 하루의 1/3을 버스에서 보낸다. 버스는 우리에게 매우 친근했다. 한국에서 폐차한 버스를 수입해서 미얀마에서 쓰기 때문에 버스에는 우리나라 광고 포스터가 붙여져 있고 익숙한 지역 명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폐차시킨 것이다. 의자에 쿠션감이 없으며, 종종 에어컨이 고장 난 버스도 있다. 운전 기사님들의 운전 스타일은 화끈하시다. 긴 이동 시간이 지루할 수가 없다.

동물원을 만들어 보아요 (2019.09.16~2019.09.19)

18

3주차보육활동

3주차에는 색종이를 활용하여 동물을 만들고 만든 동물을 모아 동물원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양곤 YMCA 5층 도서관에서 종이접기 책을 본 적이 있었다. 이번 활동에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도서관에서 종이접기 책을 가져와서 봤다. 그러나 우리들조차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동물이 없어서 “어떡하지?” 싶었다. 그때, 우리의 구세주~ 휴대폰을 이용해 쉬운 동물 접기 영상을 찾았다. ‘아이들이 쉽게 따라 접을 수 있는 동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코끼리, 여우, 고래** 접는 방법을 알려주기로 했다.

동물원을 만들어 보아요 (2019.09.16~2019.09.19)

19

미지존 보육활동 준비과정

3주차 보육활동



고래와 코끼리 완성~

동물원을 만들어 보아요 (2019.09.16~2019.09.19)

20

2019.09.16 마오끌라바 YMCA

3
주
차
보
육
활
동



자~~ 따라해봐요.



동물원을 만들자!

동물원을 만들어 보아요 (2019.09.16~2019.09.19)

2019.09.1 7 양곤 YMCA 나쓰리

21

3 주차보육활동

내가 붙일거야~~



동물원을 만들어 보아요 (2019.09.16~2019.09.19)

22

2019.09.18 **흘라인따야 YMCA**

3 주차보육활동



우리 (흘라인따야 아이들&미지존 팀) 이 만든 동물원 완성!

쉽게 접을 수 있는 동물들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동물들을 미지존 팀, 알렉스, 캄테가 다 접어줬다는 소문이,,,

동물원을 만들어 보아요 (2019.09.16~2019.09.19)

2019.09.19 웨비다 초등학교

23

3주차보육활동



눈, 코, 입을 그려보아요~



이렇게요??

동물원을 만들어 보아요 (2019.09.16~2019.09.19)

24

2019.09.19 웨비따 초등학교

3주차 보육활동



으차으차~ 동물을 붙여보자



내가 뭐 그리고 있게?

동물원을 만들어 보아요 (2019.09.16~2019.09.19)

25

2019.09.19 웨비따 초등학교

3주차 보육활동



폴칠 할 사람~~



동물원을 만든 사람이 누구야?? 우리요~ 😊

미지존의 한 줄 소감

오현진

생각 외로 아이들의 종이접기 습득력이 빨라 진행이 수월했다.

신유정

쉬운 동물 접기 활동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해서 보육을 진행하는데 어려웠다.

안소연

아이들과 옹기종기 붙어 종이접기를 하였는데, 사람의 열기 때문이었는지 훨씬 덥고 땀이 많이 났다.

홍세현

동물과 관련된 미얀마어를 아이들이 알려주었다. 서로 협동하고 배우는 시간이었다.

구건모

선생님들도 종이접기를 살짝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미얀마에서는 종이접기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구나 생각을 했다

4주차 보육활동을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었다. 순천에서 지역훈련을 할 때, 보육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익혔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장소도 제한적이고 언어도 통하지 않아 아이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웠다.

4주차 활동도 3주차 활동과 같이 미술 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번 활동은 물감을 이용하는 활동이라서 더욱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사전에 팀원들과 시뮬레이션을 하고 주의사항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했다. 미술활동과 함께 1주차 때 했던 손 씻는 활동을 복습할 수 있었다.

손바닥으로 지구를 만들어 보아요 (2019.09.23~2019.09.26)

28

2019.09.23 마오글라바 YMCA

4
주
차
보
육
활
동



이게 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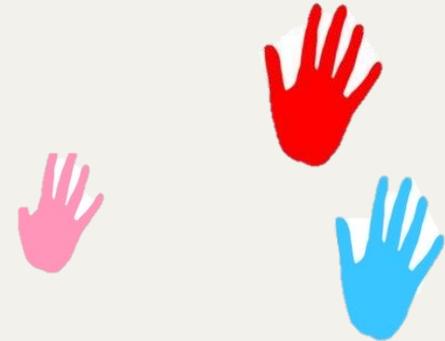
꼭꼭~ 손바닥을 찍자!

손바닥으로 지구를 만들어 보아요 (2019.09.23~2019.09.26)

2019.09.23 마오글라바 YMCA

29

4 주차보육활동



우와~ 우리 손바닥이다



손바닥으로 지구를 만들어 보아요 (2019.09.23~2019.09.26)

30

2019.09.24 양곤 YMCA 나쓰리

4
주
차
보
육
활
동



내 손바닥 꾸며야지~~



우리의 손바닥으로 만든 지구

손바닥으로 지구를 만들어 보아요 (2019.09.23~2019.09.26)

2019.09.24 양곤 YMCA 나쓰리

31

4
주
차
보
육
활
동



Wash your
hands~



손바닥으로 지구를 만들어 보아요 (2019.09.23~2019.09.26)

32

2019.09.25 **흘라인따야 YMCA**

4 주차 **보육활동**



손바닥에 물감 묻힐 친구들! 줄 서세요~

손바닥으로 지구를 만들어 보아요 (2019.09.23~2019.09.26)

33

2019.09.26 웨베따 초등학교

4 주차보육활동



손으로 물감을
콕콕!

손바닥으로 지구를 만들어 보아요 (2019.09.23~2019.09.26)

34

2019.09.26 웨비따 초등학교

4
주
차
보
육
활
동



우당탕탕! 우리가 손으로 그린 그림 완성~

미지존의 한 줄 소감

35

4 주차보육활동

오현진

물감을 이용하는 놀이여서 아이들의 통제에 더욱 신경 썼던 것 같다. 아이들이 통제에 잘 따라주어서 고마웠다.

신유정

아이들이 질서를 지키면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몸이 좋지 않아서 4주차에 활동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안소연

쉐비파에서 다른 조에 비해 우리조 아이들이 통제에 잘 따라주어 너무나 고마웠다.

홍세현

아이들에게 손에 물감을 묻히고 신나게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 것 같아 뿌듯하지만 다음부터는 놀이 주의 사항을 꼼꼼히 설명하여 보다 더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만들고 싶다.

구건모

가방과 옷에 물감이 묻어 버렸지만 아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개인적으로 제일 재미있던 주였다

하우스 키핑

하우스키핑

37



양곤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소는 올드빌딩과 우리가 살고 있는 뉴빌딩으로 나누어져 있다. 올드빌딩에 머무는 사람들의 성별은 남성이고 장기체류자들이 많다. 뉴빌딩은 상대적으로 시설이 깨끗한 편이며, 성별과 인종이 다양한 사람들이 머물고 있다. 매주 금요일마다 숙소 청소하는 일을 돕는다.



- 뉴빌딩은 주로 관광객이 머물기 때문에 아주 꼼꼼히 청소를 해야한다.
- 올드빌딩과 리셉션을 제외한 3명끼리만 청소를 하기 때문에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다.
- 바닥을 쓸고 걸레로 꼼꼼히 닦는다. 침대 이불을 호텔식으로 정리하고 거울과 유리창을 먼지 하나 없게 닦는다.



올드빌딩은 남자들만 사는 곳이라 위험해서 남자들끼리 돌아가면서 청소한다. 먼지가 많고 장기투숙객들이 많아서 청소가 고되다.

특히 화장실 청소를 한 번 하면 양곤YMCA직원들이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한다.

객실의 수는 뉴빌딩보다 5배는 더 많다. 올드빌딩도 직원과 붙어서 일을 하느라 적잖이 친해지게 된다.



리셉션에서 하는 일은 간단하다. 손님들을 같이 맞이하고 옆에서 업무를 보조한다.

YMCA직원들과 붙어서 일하기 때문에 친해지기 제일 좋은 시간이다. 장난을 치면 되게 잘 받아주고 좋아한다.

생각보다 한가해서 직원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다.

아띠 클럽 ATTI CLUB

문화 교류 언어 수업



<1주차> 9/8 아띠 클럽 참여자 모집 공고

42

- 페이스북 모집
- 전 기수 참여자 재가입 여부 확인

양곤 대학교 랜드마크 나무 앞에서
아띠 클럽 홍보 영상을 찍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여러번의 NG를 거듭하며
재미있게 만들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줄까?
기대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
아띠 클럽에 대한 공지를
페이스북에 올리기로 했다.



<2주차> 9/14 오후 2시 양곤YMCA 5층 도서관

목차

활동 1) 김치 볶음밥 만들기
- 레시피 공유 및 조리

활동 2) 한국의 유명한 여행지 소개
- 서울, 경주, 부산

활동 3) 대학생 라이프스타일 소개
- 전공, 학교 수업, MT, 축제,
시험, 총회, 동아리, 예비군 등

활동 4) 기본 한국어 회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name	gyeok	nieun	digeut	rieul	mieum	bleup	slot	leung	jieut
	ㅊ	ㅋ	ㅌ	ㅍ	ㅎ	ㅊ	ㅊ	ㅊ	ㅊ
name	chleut	kieuk	tleut	pleup	hleut	ssang-gyeok	ssang-digeut	ssang-bleup	ssang-slot

<2주차> 9/14 오후 2시 양곤YMCA 5층 도서관

44

활동 1) 김치 볶음밥 만들기 - 레시피 공유 및 조리



다섯명 정도 와줄까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연령대도 중학생부터 할머니까지 다양했다. YMCA의 스태프분들도 와주셔서 모두 20명 정도 되었다. 도서관이 딱 차서의자가 모자를 정도였다. 준비한 요리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다행히 김치를 많이 사 두어서 괜찮았다.

첫째주 메뉴는 ‘김치 볶음밥’으로 정했다. 우리 다섯 멤버가 가장 좋아하고 자주 해먹는 요리이기 때문이다. YMCA 근처 슈퍼에서 파는 ‘아줌마 김치’가 정말 맛있다. 우리는 올드빌딩 4층 주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새로운 아피클럽 멤버들과 함께 만들었다. 처음 만나서 어색함도 잠시, 레시피를 설명해주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나눠먹으니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다들 맛있다고 해주었지만, 알고보니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전에 고려하지 못하고 햄을 넣어버렸다. 정말 미안했다

<2주차> 9/14 오후 2시 양곤YMCA 5층 도서관

45

활동 2) 한국의 유명한 여행지 소개 - 서울, 경주, 부산



우리는 소개하고 싶은 한국의 여행지를 서울, 경주, 부산으로 잡았다. 서울과 부산은 가장 유명한 큰 도시이고 경주는 한국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가장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송례문, 광화문, 남산타워를 소개했다. 경주에서는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첨성대를 소개했다. 부산에서는 감천문화마을과 해운대를 소개했다.

우리는 남산타워의 사랑자물쇠걸기 문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시위, 부산의 국제영화제, 감천문화마을에 가면 복고풍 교복을 빌려준다는 것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클럽 멤버들은 이번에 '경주'라는 곳을 처음 알게되었다고 한다. 첨성대가 별의 관측을 위해 만들어진 유적지라고 하니 흥미로워했다.

<2주차> 9/14 오후 2시 양곤YMCA 5층 도서관

46

활동 3) 대학생 라이프스타일 소개
- 전공, 학교 수업, MT, 축제, 시험,
총회, 동아리, 예비군



우리는 우리 다섯 멤버들의 얼굴만 보고 대학 전공을 맞추는 게임을 했다. 그런데 클럽 멤버들이 한번에 맞춰버려서 놀랐다. 그리고 우리는 개강총회를 시작으로 수업을 듣고, 엠티를 가고, 스승의 날을 챙기고, 축제 때에는 야외 펍에서 술을 마시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학생회를 뽑는 투표를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바쁜 일상의 흐름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한국의 학생들이 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클럽 멤버들이 한국 남자들의 '예비군'에 대해서 신기해했다. 미얀마의 남자들에게는 군대가 선택이라고 한다.

우리과 비슷한 또래의 클럽 멤버들은 흥미로워했지만,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클럽 멤버는 잘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재미있는 모임이 될지 더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주차> 9/14 오후 2시 양곤YMCA 5층 도서관

47

활동 4) 기본 한국어 회화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말부터, 밥 먹을 때 표현과 가족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미안마어를 잘 몰라서 영어로 가르쳐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An nyeong ha se yo], [Yep peo yo], [Gam sa hab ni da] 이렇게 영어로 발음을 적었다. 다행히 모두 흥미를 가지고 잘 따라와 주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단어는 ‘언니’, ‘형’, ‘동생’ 이었다. 이름을 몰라도 부를 수 있지만,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친근한 표현이라서 좋아하는 것 같았다.

한국어를 원래 잘하는 그룹과 이제 막 배우려는 그룹의 사람들이 섞여 앉아있어서 어떤 사람이 따라오기 버거워하는지 구별이 잘 안됐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초급반, 고급반으로 나누어 보다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3주차> 9/21 오후 2시 양곤YMCA 5층 도서관

48

목차

활동 1) 만두국 만들기
- 레시피 공유 및 조리

활동 2)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 영화관, 서빙, 과외 등

활동 3) 방학을 보내는 방법
- 국내여행, 해외여행, 취업준비

활동 4) 한국 속담 맞추기

활동 5) 대중교통 이용 회화



<3주차> 9/21 오후 2시 양곤YMCA 5층 도서관

49

활동 1) 만두국 만들기 - 레시피 공유 및 조리



우리 다섯 멤버는 만두국에 칼국수면을 넣어먹는 것을 좋아한다. 이번 주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클럽 멤버를 위해 고기 대신 두부가 들어 있는 만두를 샀다. 주방의 공기가 더워서 모든 클럽 멤버들이 참여하지는 않았다.

많은 양을 준비하다보니 만두가 여러개 터져버려서 맑은 국물을 내지 못했다. 그리고 칼국수면인 줄 알고 샀던 굵은 국수가 향신료 맛이어서 한국 본토의 맛을 그대로 맛보여주지 못해 아쉬웠다. 주방에서 도서관으로 가져오는 사이 면이 불어서 국물이 줄어들었지만 클럽 멤버들이 맛있게 잘 먹어주었다.

<3주차> 9/21 오후 2시 양곤YMCA 5층 도서관

50

활동 2)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 영화관, 서빙, 과외 등

활동 3) 방학을 보내는 방법
- 국내여행, 해외여행, 취업준비



클럽 멤버 중에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밝힌 사람이 여럿 있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종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점과 단점을 꼼꼼히 분석해서 알려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주로 놀러가는 한강과 국내 여행지들을 추가로 소개했다.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럽 여행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주었다. 문득 미얀마의 학생들도 한국의 학생들처럼 해외여행을 자주가는지 궁금해졌지만 물어보지 못했다.

또한 한국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할 자격증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3주차> 9/21 오후 2시 양곤YMCA 5층 도서관

51

활동 4) 한국 속담 맞추기



이번 시간부터 고급반과 초급반으로 분반을 하였고, 고급반은 속담을 배우기로 했다. 가장 재미있었던 속담은 ‘뱀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량이 찢어진다’였다. ‘뱀새’와 ‘황새’라는 단어가 매우 생소해서 아무리 한국어를 잘하는 멤버라도 잘 알지 못했다. 그리고 ‘가량이 찢어진다’라는 표현을 신기해했다. 몸으로 말하는 속담게임도 진행하여 난이도 조절과 흥미를 모두 이끌어낸 것 같아 뿌듯한 수업이었다

활동 5) 대중교통 이용 회화



초급반에서는 숫자와 색깔 단어를 모두 익히기 위해 ‘서울에서 지하철 타기’로 주제를 잡았다. 지하철을 타는 상황의 짧은 동화를 보여주고 그 스크립트를 이해하는 활동을 했다. 숫자 [il, i, sam, sa, o, yug, chil, pal, gu, sib], 갈아탈 수 있는 역 / 다음 역[Gal-a tal su Iss neun Yeog / Da-eum Yeog]에 대해서 배웠는데 너무 어려웠다. 자음과 모음으로 읽고 쓰는 것보다 바로 회화로 들어가는 것이 더 실용성이 높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문법을 체계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하철이 없는 나라 사람들에게 지하철에 관련된 한국어를 가르치니까 더 어려웠다. 애초에 주제부터 공감할 수 없었던 것 아닐까 반성하게 되었다.

<4주차> 9/28 오후 2시 양곤YMCA 5층 도서관

53

목차

활동 1) 잡채 만들기
- 레시피 공유 및 조리

활동 2)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임

활동 3) 속담 맞추기

활동 4) 노래로 한국어 배우기
- 동요 멋쟁이 토마토, 잘 있어요
- 장윤정 어머니



<4주차> 9/28 오후 2시 양곤YMCA 5층 도서관

54

활동 1) 잡채 만들기 - 레시피 공유 및 조리



날씨가 많이 더워서 먹을 때 뜨거운 요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한국에는 추석일 때라 오랜만에 다섯 멤버도 명절 음식을 먹고 싶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잡채만들기에 도전했다. 많은 양의 요리를 하다보니까 간이 조금 멍멍하게 맞춰졌지만 그래도 고소하고 쫄깃하고 맛있는 요리가 완성되었다.

<4주차> 9/28 오후 2시 양곤YMCA 5층 도서관

활동 2)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임

활동 3) 속담 맞추기



고급반에서는 후라이팬, 베스킨라빈스, 아파트, 손병호, 출석부 게임을 진행하였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놀이들을 추렸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다는 클럽 멤버들이 많았다. 그래서 더 빠르고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 속담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게임으로 진행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가재는 게편’ 이런 재미있는 속담들을 준비했다.

<4주차> 9/28 오후 2시 양곤YMCA 5층 도서관

56

- 활동 4) 노래로 한국어 배우기
- 동요 멋쟁이 토마토, 잘 있어요
 - 장윤정 어머니



초급반에서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이렇게 쉽게 반복되는 동요를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클럽 멤버들의 요청이 있었던 ‘멋쟁이 토마토’라는 동요도 알려주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말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어머나’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별, 달, 날씨, 계절, 색깔을 테마로 단어 30개씩 알려주었다. 외워야할 내용이 많아서 가르쳐주는 입장에서도 너무 어려울까봐 그냥 이런 노래가 있다 정도로만 집고 넘어야할까. 아니면 이제 한국어를 배운지 한달이 지났는데 조금 더 많이 알려줘야 할까 고민이 많았다.



현진

아띠클럽을 통해 새로운 미얀마 친구를 만날 수 있어 기분이 좋았고, 미얀마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서로 교류한 것 같아 뜻 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소연

한국 생활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미 미얀마 분들이 한국에 관심을 많구나 알았고 한국의 문화가 미얀마에 전파되어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유정

아띠클럽을 통해 한국의 음식을 전파하고, 미얀마의 노래와 한국 노래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인 된 것 같아 뜻 깊었다.



권모

또래 친구들을 만났는데 나보다 한국 아이돌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어서 놀랐다. 또 한글을 배우는 것에 있어 매우 열정적이라서 나도 미얀마어를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다.



세현

그동안 한국어를 알려주기 급급해서 친구를 만드는 일에는 소홀히 한 것 같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어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걸까 잘 알지 못해서 혼란스럽기도 하다. 다음 달부터는 부담감을 좀 내려놔야 할 것 같다. 앞으로는 아띠 클럽을 더 소통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싶다.

미지존의 일상생활

모두가 마스터 셰프



매일 양곤 식당에서 요리를 함께하는 미지존의 모습이다. 점점 팀원들의 요리 솜씨가 늘어가는 것을 느낀다.



장난꾸러기 알렉스가 직접해준 치킨요리 알렉스의 뛰어난 요리솜씨를 알 수 있게 되어 반전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양곤 YMCA 근처 탐방

수올립파고다

미얀마에는 수 많은 장소에 파고다가 있다. 그 중 양곤 YMCA에서 가장 근처에 있는 수올립파고다는 도보로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차도에 위치한 이 파고다는 도심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더욱 아름다운 그림을 만든다.



양곤 YMCA 근처 탐방



반둘라 탑

수올립 파고다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반둘라 탑이 있다. 이 탑은 엄청난 높이를 자랑하며 공원 한 가운데 위치하여 주변 정원에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를 온다. 탑 전체가 나오게 단체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반둘라 탑의 높이에 굴복하여 일부만 찍은 미지존이다.

양곤대학교 방문

양곤대학교 정문



처음으로 양곤YMCA 근처를 벗어나 방문한 곳은 양곤대학교였다. 버스로 약 1시간을 달려 도착하였고 순천 지역훈련에서 미얀마 선생님이 다니신 대학교였기 때문에 팀원들 모두 가보고 싶어했다. 또한 외국에 위치한 대학교를 팀원들 모두 처음으로 가보기 때문에 많은 설렘을 느꼈다.

양곤대학교 방문



양곤대학교 안에 있는 길이다.
연인끼리 상대방을 업고 이 길을 걸어 완주
하면 결혼하여 잘 살 수 있다는 전설이 있다
고 한다.



양곤 대학교의 상징인 이 나무는 100년이
넘은 오래된 나무이다.
19기 아띠클럽을 홍보하기 위해 누구든지 가
입할 수 있다는 포즈이다.



양곤대학교 안에 있는 위치
한 한국지식센터이다. 양곤
대학교에서 태극기를 보니
기분이 새로웠다.

임야 호수 방문



양곤대학교를 방문한 후에 근처에 있는 호수를 방문하였다. 호수 근처에 맛있는 먹거리도 팔고 장난감도 팔고 마치 대공원에 온 것 같았다
이 포즈로 사진을 찍기 위해 모두 티를 맞춰 입고 왔다.



이날 하루종일 우리의 가이드를 해준 귀여운 개구쟁이 캉테와 우리 다섯 멤버의 셀카. 호수에서 많은 연인들이 지나가 부러워(?)했던 우리 여섯명이였다.

세계 평화 행사 방문



우리 미지존의 어머니 산드라와 함께 세계 평화 행사를 방문하였다. 여기서 미얀마의 여러 민족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과 인사말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미얀마 전통공연 관람



미얀마의 전통 공연을 실제로 볼 수 있어 미얀마의 문화에 대해 더 익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섯명 모두 미얀마의 춤에 매료되었던 하루였다.

월 별 나 눔

미얀마에서의 첫 한달은 신기하고 당황하고 적응하는 한달이었던 것 같다. 처음 미얀마에 도착하였을 때 건물, 식당, 거리, 버스 등 모든 것이 신기했고 새로웠다. 또 매일 다른 유치원에서 보육을 하여 각 유치원의 이름과 장소, 유치원의 아이들에게 적응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과정이 즐거웠고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쌓는 기분이 들어 행복했다. 물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순간도 있었지만 타지에서 힘들거나 즐겁거나 상관없이 언제나 항상 기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팀원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를 이겨낼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었던 것 같다.



처음 미얀마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었고, 모든 순간 긴장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익숙해져 길 거리를 혼자 다니게 되었다. 하루는 친구와 통화하며 편의점을 가다가 Y 스텝 분과 마주쳤는데 여자 혼자 길거리를 다니지 말라고 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적응을 가장 주의해야할 것 같다.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을 처음 해봤다.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나를 반성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지만 그 천진난만한 행동들이 때로는 나를 버겁게 만든다. 한국에서는 유치원 선생님들을 위한 제도들이 존재하고 발전해 가고 있지만, 많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감당하고 있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대단해 보인다.

아피클럽에 참여해준 연령대가 중학생부터 할머니 분까지 계셨다. 주 연령층이 우리 나이 또래이긴 하지만 활동을 준비할 때 모두를 고려한 활동을 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아직까지는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재미있었던 일이 참 많았다. 아이들과 함께 놀았던 것들, 예쁜 야자수 나무를 보며 실 때, 수올립 파고 다에 가서 본 풍경들, 고전 오페라를 본 것들도 기억에 남는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많다. 쉐다곤 파고다도 가고 싶고 언어도 더 많이 배워서 아이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싶다. 재미있었던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 힘들다는 걸 잊어버려야 했다. 힘들고 아프고 지칠수록 내일을 더 기다려야했다. 아무도 고마워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던해져야 했다. 이곳에서 나는 분명 빛나지 않았지만 행복해지기 위해 견뎌야 하는 것들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한 달 동안 입맛과 씻는 것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적응했다. 우리가 요리를 해서 먹는 것 말고 바깥에서 외식을 하거나 현지음식을 먹으면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 그리고 남자방은 가끔 단수가 된다. 비눗기가 덜 헹귀졌을 때 물이 안 나오면 수건으로 대충 마무리를 하고 여자방에 가서 다시 씻는다. 그럴 때는 한국의 편리함이 그리워지는데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시설과 비교가 된다. 또 총무 역할을 맡았는데 한 주는 계산이 맞지 않아서 사비로 채웠다. 책임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계기다. 다른 책임감도 느꼈는데 그건 아이들의 즐거움이다.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데 우리가 즐겁게 해주지 않는다면 재네들 왜 온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다.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5개월 동안 산다는 일은 정말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그런 설렘을 가진 순간은 잠깐 뿐이었다. 미얀마에 도착한 순간부터 2주 동안은 모든 것을 한국과 비교했었다. ‘한국은 잘 되어있는데 미얀마는 아니네, 미얀마에서는 왜 그럴까?’ 등의 생각이 내 머릿속을 지배했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불만 투성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이런 불만을 하려고 이 곳에 온 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5개월동안 계속 이런 마음으로 생활하게 되면 후에 후회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마음 가짐을 바꾼 순간이 아마도 이 순간부터 였을 것이다. 마음 가짐을 고쳐 먹으니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다르게 보였다. 활동을 할 때도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고 마음이 편안해지니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보였다. 처음에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직 스스로가 이 생활에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너무 활발하게 다가오니까 당황스러웠다. 미얀마에 와서는 보육할 때만이라도 절대 소극적으로 하지 말자고 다짐 했는데 그 다짐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속상했다. 그러나 한달 동안 보육활동을 하면서 스스로가 많이 변화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니 아이들이 먼저 다가오고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어서 앞으로 더 발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지존 모두 남은
4개월도 앞으로 이렇게
웃으며 보람차게 지내자!

감사합니다.